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 측정도구 개발 - 노인 범죄 증가와 관련하여 -

이 속 경* · 홍 정 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의 범죄 증가율은 노인 인구의 증가율보다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2006). 1996년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의 수는 1,922,000여명이었으며, 이 중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한 범죄는 전체의 1.8%인 34,000여명이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전체 범죄자 1,932,000여 명 중 노인범죄자가 전체의 4.3%인 82,0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범죄자가 0.5%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노인 범죄자는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Jang, 2009). 또한 노인 범죄의 종류도 강도, 방화, 살인 등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그 성향이 점차 강력 범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살인이 1996년 2.3%에서 2005년 8.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범죄 성향의 변화는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Lee, 2009).

범죄는 다른 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어난서는 안 되는 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건발

생 후의 처벌이나 피해자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범죄가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단계, 결과단계, 대응단계 등으로 나누어 추정해 본 결과, 예방단계에서는 31.5%, 결과단계에서 42.2%, 대응단계에서 26.3%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ho, Min, & Kim, 2010). 이 중 예방단계의 비용은 세 단계 중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예방이 되었을 경우 나머지 두 단계의 비용은 필요치 않거나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범죄 대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일탈행동이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는데(Hwang, 1997), 공식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도 이에 포함된다. 일탈행동은 시대적 차이,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 일탈행동으로 규정하는 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Jung, 1986).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탈행동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Yorston과 Taylor(2006)의 연구에서 노인 수감자들은 젊은 수감자들에 비해 법적 처리보다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여 법적처리 외의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cmhong@tu.ac.kr)

투고일: 2011년 4월 28일 심사회의일: 2011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19일

과거 노인들의 범죄는 특이한 성향을 가진 극소수의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상 행동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노인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Oh, 2002). 경제적 성장과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환경의 개선, 영양상태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아지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 개개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병리학적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노인범죄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Lee, 2004). 즉,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심리적 변화를 일으켜 문제가 없어 보이던 노인들조차 한 순간에 범죄행위를 하게 되고 가해자가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Oh, 2002). 따라서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일탈행동 성향과 일탈행동을 유발시키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위험요인의 측정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범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피해 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예방과 피해로부터의 회복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가해자 노인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현재 노인범죄의 증가와 그 성향의 변화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Ku & Lee, 2007).

간호사를 비롯한 건강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일상생활 중 일탈행동 성향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 간호사는 다양한 환경에서 대상자를 접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에서 간호사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만나며 노인들에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건강전문가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노인의 일탈행동 성향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상습적 범행을 예측하거나(Loza et al., 2004) 공격적 행동을 예측하는 도구(Endrass, Rossegger, Frischknecht, Noll, & Urbaniok, 2008)가 개발되었지만, 이는 일

반인이 아닌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탈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그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노인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노인들의 일탈행동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이들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초기에 이를 중재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일탈행동 성향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측정함으로써 노인이 할 수 있는 일탈행동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일탈행동 성향과 관련된 위험요인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 설계되었다.

2. 연구 진행과정

1) 개념틀에 근거한 예비문항 구성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한 결과, 일상생활활동(The Chosunilbo, 2008), 불안 및 우울(Kim, Ko, & Chung, 2010; Lee, 2009), 가족과의 관계(Kim, 2009; Kim et al., 2010), 무력감(Kim, 2009; Lee, 2006), 사회적 관계(Choi & Jin, 1994; Kim, 2009), 여가생활(Ha, 2007; Kim, 2009; Lee, 2009), 경제적 여건(Ha, 2007; Lee, 2001; Lee, 2006), 성에 대한 태도(Lee, 2007; Lee, 2009)가 노인의 일탈행동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Figure 1과 같은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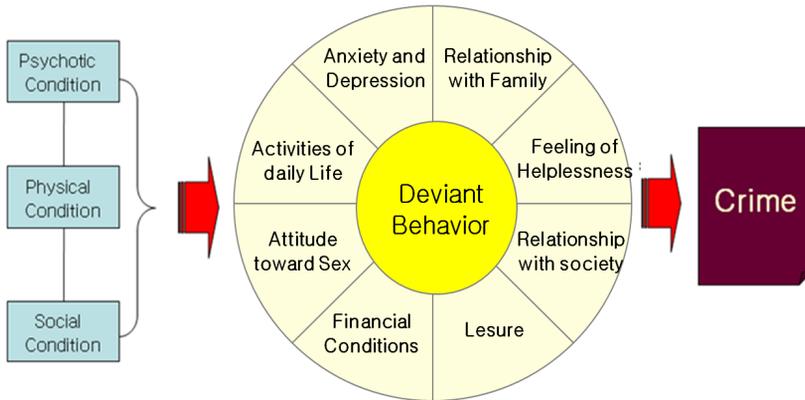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에 대한 8개 요인의 개념들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념들에 근거하여 8개 요인의 52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일탈행동의 위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내용타당도 검증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전문가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므로(Lynn, 1986),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1명, 성인간호학 박사과정생 3명, 정신간호학 석사과정 2명으로, 총 6인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예비도구의 예비문항 52문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정은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다' 4점, '적절하다' 3점, '적절치 않다' 2점, '매우 적절치 않다' 1점으로 평점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CVI가 8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항에 긍정적, 부정적 표현이 혼합될 경우 답변에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질문의도를 일원화하고자 모든 문항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 사전조사

각 문항은 대상자가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가 가능

한 수준이어야 하므로,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에 대하여, 고졸인 80세 남성노인과 초졸인 82세의 여성노인을 직접 만나 문항의 이해도를 확인한 후 수정, 보완하였다.

4) 본조사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과 성별(남성, 여성)로 할당표집하여, 이를 편의 표집하였다. 즉, 우리나라 인구 및 노인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대도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 거주자로 나누고, 전체 인구에 비해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어촌의 경우 중소도시와 같은 비율인 25%로, 노인인구의 남녀가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남성 노인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할당하는 비확률 할당표집전략을 추가함으로써 편의표집으로 인한 우연의 결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76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중 빈 칸이 많거나 같은 척도로 표기된 응답지와 같은 부적절한 응답지 43부를 제외하고 233부의 응답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27문항의 구성을 위한 요인분석을 하기에 대상자의 수가 적절해야 하며, 요인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수는 문항의 5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Gorsuch, 1983), 본 연구에서는 233부의 응답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연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연구 보조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읽어주고 응답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 측정도구의 설문지에 응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절차, 비밀유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대상자만을 자료수집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5)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1)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내적일관성 검정에 의한 신뢰도 검정을 하였다.

(2) 타당도 검정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과 집단비교법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내용타당도 검정

개념들에 근거하여 구성된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예비문항 52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정을 한 결과, CVI가 80% 미만인 문항을 삭제하여 28문항이 선정되었다. 그 중 중

Table 1. Results from Content Validity (27 items)

Factor	Item	Contents
Activities of daily living	6	대소변을 보고 닦고 옷을 추스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27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Financial conditions	16	나는 생계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19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21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Leisure	9	나는 여가활동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4	나는 여가활동이 나에게 활력을 찾게 해 준다고 생각지 않는다.
	24	나는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Relationship with family	4	가족은 나에게 회복 될 수 있다고 용기와 격려를 주지 않는다.
	8	가족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10	가족은 나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Relationship with society	15	나에겐 언제 방문해도 반가이 맞아 줄 친지의 집이 3개 이상 있지 않다.
	22	내가 멀리 떠난다고 할 때, 마음 아파 할 사람은 3명이 넘지 않는다.
	26	내 주위에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Anxiety and depression	1	나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낀다.
	2	나는 신경이 극도로 약해져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20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
	25	나는 요즘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Feeling of helplessness	3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다.
	7	예전에 좋은 시절이 있었다 해도 지금을 누가 알아주는가 싶다.
	12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13	나는 종종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7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Attitude toward sex	23	마음 같지 않게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11	성생활은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생각지 않는다.
	18	노인들의 성생활은 일상적인 생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되는 의미라고 판단되는 2개의 문항('나는 여가활동을 즐길 시간이 있다.',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한다.')을 1개의 문항('나는 여가활동을 좋아한다.')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예비도구 52문항 중 27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Table 1).

2. 측정도구의 최종문항 선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71~80세가 46.35%로 가장 많았으며, 60~70세가 42.92%, 81~90세가 10.3%이었다. 성별은 여자 54.08%, 남자 45.92%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거주지역은 대도시 48.93%, 중소도시 26.18%, 농어촌 23.18%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56.65%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28.76%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의 유무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79.40%로 가장 많았다.

2)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개발된 도구의 Cronbach's α 검정 결과, 27개 전체 문항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평균은 .872이었다. 문항내적 상관성은 .30 이상이면 전체문항에 대하여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Nunnally & Bernstein, 1994). 전체 문항 중 6번 문항('대소변을 보고 닦고 옷을 추스르는데 어려움이 있다.')은 상관성이 .17로 낮고, 해당 문항을 제거하였을 때 전체 신뢰도 평균이 높아지므로(Cronbach's α = .888), 이 문항의 내적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6번 문항은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삭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성이 .30보다 낮은 .23~.29로 나타난 4개의 문항(10, 11, 12, 23번)이 있었으나, 이들 문항을 삭제할 때 전체문항의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삭제하지 않았다.

3) 구성타당도 검정(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성타당도를 검정하여 최종도구의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분석을 하기에 앞서 수집된 자료로 요인분석을 시행할 26문항의 KMO 값이 .843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치에서 문항의 correlation matrix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χ^2 = 2331.695, p < .001), 분석을 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본 단계에서의 요인분석은 주성분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회전방식은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수 결정을 위해 스크리도표를 이용한 검증과 함께 고유값 1.0 이상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모두 7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모든 문항의 요인적 재량은 .40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개의 요인이 26 문항의 도구를 설명하는 전체 설명 분산은 64.059%이었고(Table 2), 요인간 상관관계는 없었으며(Table 2), 배리맥스 회전에 의한 요인별 구조해설계수는 Table 3과 같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모두 5개 문항(1번, 4번, 8번, 10번, 27번)이 삭제되어 최종 21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Factors & Eigen Value and Variance according to Factors(26 items)

	Correlation among factors							Eigen value and variance according to factors		
	F1	F2	F3	F4	F5	F6	F7	Eigen value	Percent of the total variance explained	Cumulative percent
F1	1	0.00	0.00	0.00	0.00	0.00	0.00	7.360	14.490	14.490
F2	0.00	1	0.00	0.00	0.00	0.00	0.00	2.498	11.030	25.520
F3	0.00	0.00	1	0.00	0.00	0.00	0.00	1.691	8.978	34.498
F4	0.00	0.00	0.00	1	0.00	0.00	0.00	1.576	8.320	42.818
F5	0.00	0.00	0.00	0.00	1	0.00	0.00	1.251	8.194	51.012
F6	0.00	0.00	0.00	0.00	0.00	1	0.00	1.205	7.251	58.262
F7	0.00	0.00	0.00	0.00	0.00	0.00	1	1.075	5.796	64.059

F1: Factor 1, F2: Factor 2, F3: Factor 3, F4: Factor 4, F5: Factor 5, F6: Factor 6, F7: Factor 7

Table 3. Structural Coefficient of 26 Items by Varimax Rotation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Factor 7
FC	19	0.801	0.247	0.116	0.001	0.168	-0.003	0.030
FC	16	0.778	0.086	-0.169	0.201	0.137	0.145	0.167
FC	21	0.768	0.069	0.152	0.133	0.007	0.129	-0.036
ADL (delete)	27	0.638	0.183	0.238	-0.046	-0.028	-0.024	-0.060
RF(delete)	8	0.606	0.235	0.121	-0.136	0.387	-0.079	0.081
Leisure	14	0.193	0.801	0.059	0.109	0.106	0.086	0.083
Leisure	24	0.131	0.787	0.146	-0.010	0.030	0.074	0.081
RS	22	0.289	0.541	0.062	0.279	0.266	-0.268	0.143
RS	26	0.510	0.539	0.099	0.100	0.176	0.070	0.092
Leisure	9	0.442	0.453	0.285	-0.040	0.036	-0.104	0.046
RS	15	0.347	0.432	0.373	0.183	0.178	-0.167	0.053
AD	25	0.034	0.133	0.717	0.157	0.118	0.185	0.134
AD	20	0.190	0.253	0.666	0.196	0.050	0.035	0.093
AD	2	0.195	0.009	0.619	-0.163	0.341	0.241	0.015
FH	12	0.006	0.100	-0.007	0.773	0.113	-0.024	0.003
FH	13	0.045	0.113	0.144	0.700	0.069	0.260	0.104
FH	17	0.398	0.033	0.356	0.409	0.168	0.204	0.023
FH	3	0.033	0.252	0.248	0.202	0.620	0.105	0.102
RF(delete)	4	0.211	0.281	0.002	0.292	0.590	-0.149	0.009
AD(delete)	1	0.300	0.018	0.425	-0.090	0.573	0.166	0.025
FH	5	0.150	-0.106	0.185	0.483	0.537	0.250	0.120
FH	23	0.133	-0.052	0.221	0.233	-0.169	0.743	0.071
FH	7	0.018	-0.019	0.233	0.215	0.218	0.648	0.112
RF(delete)	10	0.016	0.410	-0.117	-0.348	0.338	0.599	-0.060
AS	11	-0.057	0.078	-0.001	0.011	0.239	0.221	0.837
AS	18	0.163	0.184	0.242	0.126	-0.104	-0.085	0.796

FC: Financial conditions,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RF: Relationship with family, RS: Relationship with society,
 AD: Anxiety and depression, FH: Feeling of helplessness,
 AS: Attitude toward sex

3. 최종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1) 신뢰도 검증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증 결과, 노인의 일탈 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21문항의 Cronbach's α 의 계수는 .873으로 나타났다.

2) 타당도 검증 (집단비교법)

집단비교법을 이용한 최종도구의 구성타당도는 일탈 행동의 결과인 범죄를 일으키는 성향이 여성보다 남성이 우세하므로(Oh, 2002),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노인의 일탈행동 성향과 관련된 위험요인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Table 4. Normality test of 21 final items and difference by gender

N=223 (female:126, male:107)

	Kolmogorov-Smirnov		Mann-Whitney-Wilcoxon			
	Z	Asymp. Sig. (2-tailed)	M	W	Z	Asymp. Sig. (2-tailed)
Financial conditions	0.738	0.647	5920.500	13921.500	-1.629	0.103
Leisure	0.776	0.584	5826.000	13827.000	-1.861	0.063*
Relationship with society	1.625	0.010	4906.500	12907.500	-3.765	0.000***
Anxiety and depression	0.987	0.284	5718.000	13719.000	-2.057	0.040**
Feeling of helplessness	0.781	0.576	5909.000	13910.000	-1.632	0.103
Attitude toward sex	1.575	0.014	5423.500	11201.500	-2.686	0.007**

*p<0.1 **p<0.05 ***p<0.001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요인별 평균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6개의 요인 중 일부 요인에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요인이 있어 Mann-Whitney-Wilcoxon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사회와의 관계(p<001), 불안 및 우울(p<05), 성에 대한 태도(p<.05) 요인에서 문헌고찰을 지지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가생활 요인에서는 유의함의 강도는 다소 약하지만 역시 눈에 띄는 남녀 간의 평균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1). 그러나 경제상태 및 무력감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6개의 요인으로 성별에 따른 집단비교를 한 결과 6개의 요인 중 4개의 요인에서 평균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개념들의 요인과 비교한 측정도구의 지지정도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념들

과 최종도구를 각 요인별로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상생활과 가족과의 관계 요인은 문항의 신뢰성 부분에서 지지되지 않았고, 두 차례에 걸친 요인분석 결과 불안 및 우울 요인에는 개념들에서 무력감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항이 포함되어 약 80%, 무력감 요인에서는 낮은 구조행렬계수로 지지되지 않은 문항 1개와 불안 및 우울 요인으로 이동된 문항 1개가 제외되어 약 70%의 지지를 보였다. 또한 무력감 요인은 그 내용이 자신 및 주변에 대한 불만과 서글픔으로 그 종류가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경제적 여건, 여가생활, 사회와의 관계, 성에 대한 태도 등은 개념들에서 구성된 요인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실증조사를 통한 노인의 일탈행동 성향은 구성된 개념들에 의해 약 72% 지지된 것으로 이는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전체 분산 누적 설명력이 64.059%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from Factor Analysis

Factor	Item	Operating definition	Results from factor analysis	
Activities of daily living	6	대소변을 보고 닦고 옷을 추스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혀 지지되지 않아 삭제함	
	27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Financial conditions	16	나는 생계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치되어 지지됨	
	19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21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Leisure	9	나는 여가활동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치되어 지지됨	
	14	나는 여가활동이 나에게 활력을 찾게 해 준다고 생각지 않는다.		
	24	나는 여가활동이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Relationship with family	4	가족은 나에게 회복 될 수 있다고 용기와 격려를 주지 않는다.	전혀 지지되지 않아 삭제함	
	8	가족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10	가족은 나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Relationship with society	15	나에겐 언제 방문해도 반가이 맞아 줄 친지의 집이 3개 이상 있지 않다.	일치되어 지지됨	
	22	내가 멀리 떠난다고 할 때, 마음 아파 할 사람은 3명이 넘지 않는다.		
	26	내 주위에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Anxiety and depression	1	나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삭제	약 75% 지지됨
	2	나는 신경이 극도로 약해져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20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		
	25	나는 요즘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Feeling of helplessness	3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치되어 지지됨	
	5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다.		
	12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13	나는 종종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7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7	예전에 좋은 시절이 있었다 해도 지금을 누가 알아주는가 싶다.		
Attitude toward sex	23	마음 같지 않게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일치되어 지지됨	
	11	성생활은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다고 생각 않는다.		
	18	노인들의 성생활은 일상적인 생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 측정도구는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으로 최종도구를 구성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최종으로 구성된 도구 21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73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일탈행동이나 범죄행위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었다. Loza 등 (2004)이 범죄자의 상습적 범행을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한 SAQ(the Self-Appraisal Questionnaire)는 72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그리고 Endrass 등 (2008)의 VRAG(the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는 폭력위험평가 도구로 수감 중인 스위스 범죄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이 두 도구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 측정도구를 비교해 보면, SAQ와 VRAG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며 일탈행동의 재발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SAQ나 VRAG를 일반노인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일탈행동의 성향이 드러나지 않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그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므로 일반노인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 하지만 SAQ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잉글랜드, 싱가포르, 미국의 여러 나라에서 그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므로 더욱 광범위한 SAQ의 사용가능성이 입증된 도구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국내 노인에게 한하여 적용가능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도구도 국내 뿐 아니라 국외 노인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한 노인의 일탈행동의 위험 정도에 대한 측정은 노인의 일탈행동의 위험을 사정하고, 그에 대한 중재를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일탈행동의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본 도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건강증진 인력은 다양한 주제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Lee, Kim, Lee, & Ham, 2003), 이들에게 일탈행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일탈행동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간호학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Jang, 2006; Kim, Chae, Park, & Woo, 2001), 그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도구를 이용한 간호학적 측면의 노인의 일탈행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일탈행동의 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의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호중재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일탈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의 일탈행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탈행동의 위험요인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도구개발의 절차는 문헌고찰을 통한 개념틀을 구성하고, 개념틀을 근거로 한 8개 요인의 52문항으로 구성된 예비도구를 구성하였다. 또한 52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여 27문항이 선정되었다. 60세 이상의 노인 233명에게 자료수집을 실시하여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27문항에 대한 신뢰도,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21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의 자가보고 형식의 최종도구가 완성되었다. 최종도구에 대한 Cronbach's α 는 .873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21문항으로 구성된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본 도구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또는 임상에서 노인을 일탈행동의 위험을 사정하고 평가한다면, 일탈행동의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대한 중재를 제공하여 그들의 일탈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 측정도구의 광범위한 사용을 위하여 국외 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일탈행동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Cho, H. S., Min, W. H., & Kim, H. M. (2010). Estimates of the social costs of crime in Korea, *Korea Social Policy Review*, 17(2), 163-199.
- Choi, I. S., & Jin, S. M. (1994). A study on the community prevention and citizens' participatio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5(3), 56-88.
- Endrass, J., Rossegger, A., Frischknecht, A., Noll, T., & Urbaniok, F. (2008). Using the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VRAG) to predict in-prison aggressive behavior in a Swiss offender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52(1), 81-89.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Ha, H. S. (2007). *A study on elderly crime prevention countermeas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Hwang, S. C. (1997). Women's social deviance and changing patterns of women's criminal behaviors in Korea. *Journal of Women's Studies*, 8, 5-17.
- Jang, I. S. (2006). The leisure type, health statu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2), 130-140.
- Jang, J. O. (2009). Elderly crime and its victimization.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1), 215-255.
- Jung, W. S. (1986). *Actual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of the teenager problem*. Seoul: ssbooks.
- Kim, C. K. (2009). *A Study on the condition and counterplan of the elder's crime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Kim, H. J., Chae, S. O., Park, Y. S., & Woo, S. H.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concep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15(2), 262-274.
- Kim, H. K., Ko, S. H., & Chung, S. H. (2010). Suicidal ideation and risk factors among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4(1), 82-92.
- Ku, H. A., & Lee, W. H. (2007). *The characteristics and solutions of the elderly's crime*. Yongin: Police Science Institute.
- Lee, C. Y., Kim, H. S., Lee, T. W., & Ham, O. K. (2003). Structure evaluation of Korean health promotion program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17(2), 181-191.
- Lee, H. S. (2007). *Research in sex crimes of the aged: The target area Seoul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O. H. (2006). Need for research of elderly crime and foundation investigation for this. *Collection of Dissertations*, 26, 405-418.
- Lee, S. C. (2009). A study on the reality of the elderly's crimes in Korea-centering on

- the offenses of criminal law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11(1), 29-58.
- Lee, S. H. (2004). *Criminal psychology*. Seoul: Pakyoungsa.
- Lee, Y. N. (2001). A study on counter-plan against elderly criminals in Korea. *Theses of Social Sciences*, 6(1), 1-12.
- Loza, W., Cumbleton, A., Shahinfar, A., Neo, L. H., Evans, M., Conley, M., & Summers, R. (2004). Cross-validation of the Self-Appraisal Questionnaire (SAQ): an offender risk and need assessment measure on Australian, British, Canadian, Singaporean, and American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10), 1172-1190.
- Lynn, M. R. (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5.
-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2006). *Crime reports*. Yongin: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 Nunnally, J., & Bernstein, I. (1994). *Psychometric theory*. NewYork: McGraw-Hill Humanities.
- Oh, H. S. (2002). A study on the elderly crime realities analysis and social welfare solu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15(1), 217-234.
- Sadly for us the 'twilight crime'. (2008, April 25). The *Chosunilbo*.
- Yorston, G. A., & Taylor, P. J. (2006). Commentary: older offenders—no place to go?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34(3), 333-337.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Risk Factor-related Deviant Behavior for the Elderly in South Korea

Lee, Sook Kyung(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Hong, Chong Min(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Tongmyung University)

Purpose: The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n instrument to measure risk factor-related deviant behavior (RFRDB) for the elderly. **Methods:** The preliminary instrument including 52 items to measure the risk factor-related deviant behavior for the elderly was developed through conceptual framework based literature review. The items were reviewed by experts to reveal the Content Validity Index (CVI). Then,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tested using factor analysis, comparative groups, and Cronbach's alpha with data from 233 elderly. **Results:** Among 52 items, 27 questions in the RFRDB instrument were selected from content validity and 21 questions in the final RFRDB were developed from testing validity and reliability.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retest) of RFRDB were supported by 70% congruity with conceptual framework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RFRDB has been completed by validity testing by known-group technique. The final developed RFRDB of the elderly has 21 questions each with a 4-point Likert Scale. **Conclusion:** The RFRDB may be utilized as a measurement to assess the risk of elderly deviant behavior.

Key words : Aged, Behavior, Anomie